

건축선언! 대한민국 건축을 위한 제언

Architectural Proclamation! The Epigraph of Korean Architecture

조총기 |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겸 편집국장

2002년 3월 우리나라는 5년제 건축학과생을 선발하여 2007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11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는 소규모건축물의 설계자가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2012년 올해 '건축학 전문학위 인증프로그램' 졸업생의 51.4%만이 건축사사무소로 취업하였다.

무엇이 대한민국 건축의 미래이고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그래, 시대를 탓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는 변화된 외부적 조건을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 들여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설정하고 최종의 목표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시공자의 행정 앞잡이가 되어 건축의 본질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차라리 건축사를 버리자!

건축주와의 상담이 불가능한 현실의 건축사,
건축주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고, 시공사를 찾아가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말라.
건축주와 공사비를 상담해야하고 시공을 알아야하고 재료를 알아야한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을 알아야 한다.

자부심의 건축사. 여러 번의 패배는 있을 수 있지만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될 터!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뛰어 들어라. 건축사가 짓는 건물이 차마 시공사가 지은 것만 못하기야 하겠는가? 가라! 가서 그대의 창작물을 직접 지어라. 비용도 알고 재료도 알고 시장도 알고 금융도 알고 자존심도 알 것 아닌가. 그래야 건축을 말 할 수 있지 아니한가?
그래야 건축주와 대화라도 되지 아니 하겠는가?
그래야 건축이 국민들 속으로 스며들지 않겠는가?
그래야 저 아둔한 정부가 깨우치기라도 할 것 아닌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윤리를, 인문사회를, 재료를, 구조를, 환경을, 설비를, 시공을, 적산을, 법규를, 부동산을, 경제를, 건축행정을... 졸업 후, 또 다시 실무를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홀로 일어서 갈 수 있도록 실무적(professional degree)으로 가르쳐야 한다.
감히 건축계획에도 관여하는 저 무례한 공무원 앞에서 당당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건축주 앞에서 공간의 품격을 논하고 공기와 공사 예정가를 설명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건축은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며, 시대에 이름을 붙여 왔다.
이제 건축사가 바뀌어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건축의 자존심이 활짝 피어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건축의 본질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건축사들과 건축의 미래 인재들이 '떳떳하게 건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자, 건축을 선언하는 이유다! ㄹ

조총기는 건축사이며 시인이다. 디자인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간 향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학과에서 건축설계를 강의하고 있다. 최근작품으로는 LaMista, ITower, traum, ToTo, t / elou, forRest, 아침, 길동390 등이 있다.